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3강,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성경 가르침의 세 가지 수준, 1부.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3강,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 성경 가르침의 세 가지 수준, 1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시리즈의 세 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몇 가지 서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두 영상에서 우리는 특히 이 시리즈에서 영어로 된 성경 번역본을 인식하는 문제와 성경을 공부할 때 다양한 성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공식적 동등성과 역동적 동등성 간의 차이점과 그 연속선에서 일련의 번역본을 사용하여 성경을 더 잘 설명하고, 번역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때때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성경이 다른 이유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독교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 두 강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을 다룰 준비를 하면서 이 서론에서 하고 싶은 또 다른 사항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해왔고, 제 핸드아웃은 특정 상황을 위해 준비되었는데, 고린도전서에 대한 서론은 아니지만, 이 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매우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적 가르침의 세 가지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핸드아웃에서 이것을 살펴보거나, 부제에서 말했듯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신학적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로 삼을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런 방식으로 처음 모은 것은, 제가 이런 항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따로 가르쳐 왔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특히 어떤 조직이 오랫동안 무언가에 헌신해 왔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도전을 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유를 결정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은 파일 번호 3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은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작업할 수 있고, 특히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 대화에서 많은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근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독교 여정의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동일한 성경 본문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주장과 많은 다른 해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오래 살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바울이 여성과 가르침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모데전서 2:12는 매우 불안정한 텍스트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2:12, 심지어 2:12-15에 대한 질문을 조사했다면, 그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많은 견해와 입장을 매우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글쎄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기적적 은사의 역할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저는 성경 e러닝과 같은 청중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발견되는 카리스마적 표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중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입장인지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르거나,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을 읽고, 그것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아, 그게 내가 취할 견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집어들면, 다른 방향으로 똑같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갈등과 주장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과 그 세상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다른 무언가에 대한 전망을 열어줍니다.

이런 다양성의 사실은 모든 견해가 동등하게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손을 들어 "음, 가장 인상 깊은 것을 택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모든 텍스트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견해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견해가 더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견해가 가장 좋은 선택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성경이 많은 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관찰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거의 즉시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조차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일꾼들 사이의 몇 가지 논란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은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합니다. 주요 종교적 구성물만큼 심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미국에서 우리가 모르몬교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특정 종교적 견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구성물입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날 세상에는 코란과 이슬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우리의 스펙트럼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자체의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교파, 다양한 세례 방식, 사역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언제 올까요? 예수는 어떻게 지구 역사를 마무리할까요? 모두가 같은 본문을 사용하고 그 본문의 의미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그 주제에 대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쓴 책 열 권을 찾아도 만장일치의 의견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성경 본문을 연구하지만, 그 본문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성경을 상대성의 심연으로 던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다른 해석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감받은 본문과 하나의 권위 있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많은 영감받지 못한 성경 해석자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경의 권위에 대한 정통적인 공통 분모라고 부르는 것으로 뭉쳐진 교회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것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같은 책에서 우리는 확실히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다양한 해석을 볼 때 교회가 성경을 읽고 사용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특정 핸드아웃의 두 번째 페이지인 9페이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다양성이나 혼란에 빠져드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성경과 그 독자를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의 원천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주장할 때, 우리는 인식론이라는 학문에 참여합니다. 이제, 그 큰 단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철학 분야의 일부입니다. 인식론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게 아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말하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지만, 그것이 요점입니다.

우리는 인식론의 문제에 관여합니다. 기술적으로 인식론은 우리 지식의 근원, 우리 지식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지식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영감받은 텍스트가 하나 있지만 영감받지 않은 해석자와 그들의 해석이 많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신이 세상을 운영하도록 허락한 방식 덕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가야 할 성경의 중심적인 영감받은 해석자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더 작은 모델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받은 성경이 있고 많은 해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해결해야 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성경, 한 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관해 절대적인 통일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훌륭한 통일의 핵심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난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구절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는 데 있어서 트럼프 카드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르면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성령의 역할은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할은 성경이 필요하고 권위가 있으며 본문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매우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확신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성경을 연구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내용의 개념이 아니라 확신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의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결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통일성 속에서 인식하는 결론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통성이라고 부르는, 허용되는 넓은 우산 아래에서요.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렇게 매우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르게 읽는 이 성경이 하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상대주의에 정죄받는다든 뜻인가요? 무엇이든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문화에서 사용되었는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살았던 문화는 무엇이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짜증나는 토론에 들어가면 그냥 손을 들고 , 뭐든지 말하는데, 이는 질문을 논의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핑계가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경 해석에 대해 손을 들고 뭐든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탐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이 주장하는 가장 좋은 이성적 노선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 그 이성적 노선을 다른 이성적 노선과 비교하여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고 , 좋은 범위에 있는 해석의 연속선으로 보는 것을 도출해내고, 그런 다음

하나를 선택하거나, 때로는 다양성을 가지고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저는 형상을 지닌 자로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위험, 투쟁, 과제에 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스스로 재개발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교회의 모든 세대는 바퀴를 다시 발명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것을 시간과 공간의 우리 자신의 맥락으로 어떻게 옮겨서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은 이러한 다양성을 허용하고 개입하지 않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결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의 정점 이전에 신이 우리가 형상을 지닌 자로서 책임을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으며, 그는 우리가 그것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에 걸쳐 개발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사실 제 친구의 흥미로운 상황에서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끝난 후,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성경 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시 제 친구는 몰랐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성경 학자가 강의를 끝난 후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인지, 성경의 암시적인 가르침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모은 창조적인 구성물인지 물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세 가지 수준의 사고입니다. 직접적인 가르침은 맥락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암시된 가르침은 많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도록 강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창의적인 구성과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이제 저는 우리가 진행하면서 각 범주를 조금 더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확실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직접적이고, 암시적이며, 창조적인 구성. 이제, 제 친구는 무언가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 관점인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자극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이 성경 자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패러다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해석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암시적, 창조적 구성의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이 성경적 관점인 방법,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의 세 가지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내용이 거의 없는 작은 삽화 하나를 가져왔고, 수년에 걸쳐 그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모델로 개발했습니다. 저는 지금 집 서재에 앉아 있는데, 저 뒤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아주 겸손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했을 때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Lanier Theological Library로 옮겨간 매우 큰 학술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LANIER, Lanier Theological Library를 검색해 보세요. Lanier는 휴스턴에 기독교 도서관,

성경 연구 도서관을 만든 성공적인 변호사로,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고, 지금까지 그 도서관에 수만 권의 책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지금 있는 곳에서 천 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 읽은 책을 한 권으로 읽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사무실에서 하는 일을 위해 충분한 책을 모았고, 잘 지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책은 중요하고, 고린도전서에 대한 공식적인 서론을 시작할 때 훌륭한 주석 6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들에 대해 암시했고, 그것들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경전 공부를 강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지만,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료를 탐색하고 이것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어떻게 들어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구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한 과제여서 수많은 연구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 암시적, 창조적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10페이지에서 우리가 신학 백과사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도표를 살펴보세요. 이 피라미드는 여러분에게 성경 연구와 교회를 행하는 기능에 관련된 다양한 학문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피라미드는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피라미드는 꼭대기에서 절정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학 백과사전의 절정은 사역 신학, 즉 사역의 맥락에서 신학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하든, 구약성경을 공부하든, 철학신학을 공부하든, 체계신학을 공부하든, 역사신학을 공부하든, 성경신학을 공부하든,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 결국에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선포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물론 이 피라미드의 바닥, 즉 성경 자체에서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기반을 두는 것이 주해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기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과 본문 비평 및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현재 예시에서는 그 결과물을 가정하고, 본문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주해로 시작합니다. 이 차트에는 매우 중요하고 간결한 문구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해는 성경 본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량입니다. 주해에 앞서 연구할 본문을 확립하는 문헌 비평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해는 본문의 조각과 조각을 살펴봅니다.

언어는 주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해집니다. 다음 단계는, 이런 하위 측면에 대한 성화된 순서는 없지만, 저는 여기에 논리적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신학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성경 신학은 주해가 작동하는 구조적이고 개념적인 모델을 제공합니다.

성경 신학은 창세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닌 창세기를 살펴봅니다. 서사를 살펴봅니다. 아브라함 서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서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나중에 다윗 서사는 무엇입니까? 다윗 서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큰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그것이 일어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그것을 살펴봅니다. 구약시대 인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유배 기간 동안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말라기가 구약 정경에서 끝난 후부터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그 세기 이후의 맥락은 무엇이였을까요? 공개된 계시가 없었으므로, 그가 현장에 나타났을 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는 어떤 면에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구약시대에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왜 그곳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관습을 다루는 것이 성경 신학입니다. 성경 신학은 체계적 신학의 범주를 취하고 돌아가서 체계적 주제에 대한 주제별 성경 연구를 만들고 그것을 성경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신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신학은 훨씬, 훨씬, 훨씬 후대의 서양 체계 신학 구성을 텍스트에 강요하지 않고 원래의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되는 바로 그 시작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신학은 매우 중요하고, 저는 그것이 백과사전의 이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특히 기독교 교회의 초기 5세기에,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성경의 증언에서 보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교부들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들이 성경의 의미에 대한 마지막 단어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루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경, 그 맥락,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더 가깝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특히 구약성경에서 때때로 떨어진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체계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생된 개념적 모델을 기반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성찰적으로 집중시키는 교회나 전통입니다. 체계적 신학. 저는 체계적 신학 세트로 된 벽을 한 겹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있었고,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있었고, 다양한 개인이 쓴 신학의 갱신 세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적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의 전반적이고 큰 거시적 구조의 측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정통성 문제에 대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론 문제에 대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해석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항상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웨슬리안 신학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성찰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이해를 성찰적으로 집중시킵니다. 퀘이커 신학은 기독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성찰적으로 집중시킵니다.

개혁 신학자는 자신의 이해를 성찰적인 초점으로 이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물론 우리의 과제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종합하고 어떻게 전진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철학적 신학이 있습니다. 이걸 체계적 신학 앞에 놓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습니다. 이걸 신학의 평가이자 창조적 투쟁과 통합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면 철학적 신학이 필요합니다.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문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제, 세계관에 대한 문제. 저는 인식론을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큰 거시적 방식으로 집중시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증 신학이 있습니다. 변증 신학은 우리가 도달하는 이러한 결론을 선포하고 이를 옹호합니다.

그것은 신학이 개념적 틀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신학의 선언과 개념적 틀을 옹호하는 것을 추가하고, 어쩌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변증 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를 취하고, 이 모든 틀 안에는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회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머, 꽤 큰 과제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과제를 해낼 수 있을까요? 글썄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교회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학계 공동체가 아닌 개별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스스로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는 사역 신학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 수행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묶인 이론적 모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행진 순서가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성경을 배우는 당신은 그것을 세상에 전파할 개인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이제, 이 백과사전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bifurcate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에게는 생소한 단어일지 몰라도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bifurcate한다는 것은 그것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Bi는 그것을 분해한다는 뜻입니다. 이 백과사전은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통합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위한 멋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피라미드를 분수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물웅덩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피라미드 전체를 통해 펌핑될 것이고, 그런 다음 분수처럼 흘러내리고, 모든 단계를 거쳐 다시 흘러내리고, 다시 펌핑될 것입니다.

순환적입니다. 신학 백과사전은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니라 통합되어서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강할 수 있는 약점 분야에서 서로 도움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역 전문가를 위한 좋은 도서관은 모든 백과 사전의 측면을 갖추고 있어서 호출 시 가르쳐 줄 수 있으므로, 가서 같은 종류의 정보를 배우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압도적이에요. 저는 압도당했어요. 저는 이 일을 수년간 해왔지만, 지상에서 신을 대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옹호하는 일의 의미에 관해서는 피그미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고귀한 과제이며,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10페이지 하단의 그 작은 문단에서 세 번째 줄 아래에 있는 굵은 글씨를 주목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과정,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위로 뒤집는다면, 역과정은 성경의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 백과사전을 뒤집어서 사역 신학을 기초로 삼는다면, 우리는 백과사전 전체를 망칠 것입니다. 사역은 다른 모든 것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샘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향식으로 일합니다. 각각은 다음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모두 통합되어 우리가 서로에게서 영감을 얻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은 해석학이나 성경적, 역사적, 체계적 또는 철학적 신학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에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할 때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열이 아닌 통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학문을 함께 모아서 우리 세계의 주요 주제를 다루면서 그것들을 함께 다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과정을 청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 아마도 아시아, 아마도 슬라브 국가, 남미, 아랍 국가, 중동, 중동, 아시아에서 사역을 이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많은 곳에서, 그리고 당신은 사역 리더이고,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압도당한다고. 글썄요, 그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오히려 더 잘 싸우기 위해 당황했던 것처럼, 당신이 압도당하는 것은 당신이 하는 일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압도당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나요? 당신은 당신의 교회에 숫자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숫자는 좋긴 하지만,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도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사역 신학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리더십 커뮤니티를 모으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와 아마도 미국이 어떤 면에서 이 목록의 선두에 있으며, 여러 면에서 미국 교회는 길을 잃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종류의 기초를 확립하기보다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속임수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것은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범주에서 하향식으로 작업합니다. 이제, 제 패러다임의 다음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의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세 가지 수준의 성경적 가르침을 부르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방식, 암시적인 방식, 그리고 창조적인 구성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성경적 가르침의 세 가지 수준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로 다시 한번 피라미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은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성경이 그 자체의 시간과 공간, 그 자체의 관습에서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 청중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의도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더 큰 성경의 세그먼트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범주들을 각각 자세히 인쇄해 두었고, 잠시 후에 각각을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증거 본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증명 텍스트는 개념입니다. 여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증명 텍스트가 없는 중요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요한 이슈는 성경에서 편집, 텍스트의 상관 관계, 그리고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성경 구절 자체는 없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들이여, 아내를 때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아내를 때리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글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주보게 하셔서 그 질문에 답하게 하신다면, 아내를 때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사이의 존중에 관해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존중에 관해 말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좌절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주제죠, 그렇지 않나요? 답하자면, 우리가 자녀를 좌절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라면, 아내를 좌절시키나요? 아니면 아내를 향상시키고 돕나요? 그리고 저는 여성에게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좌절시키나요? 아니면 남편을 향상시키고 돕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찾고 있는 단어가 많은 증거 본문은 없을 수 있지만,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월버포스를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양에 있는 여러분은 월버포스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노예 무역의 종식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영국에서 일어났고, 노예 제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치인들이 그것의 도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해내고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 세계 역사상 슬픈 일입니다.

도덕적인 이유로 중단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노예를 두지 말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신약성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문화의 일부였기 때문에 은유를 사용합니다.

계약 노동자는 1세기에 도처에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에서는,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로마의 권력 구조에서 계약 노동자를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혀서 모든 사람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읽고, 인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역사성을 보증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예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날 나가서, 그저 이야기 형식으로 말하자면, 주변을 둘러보니 계약 노동자로 차려입은 사람이 해방노예보다 더 많았습니다. 글썄요, 결국 로마에서는 하인을 위한 특별한 제복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역사상 몇몇 유명인들은 실제로 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소유였습니다.

종종 같은 종류의 노예 제도는 아니었고, 때로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검투사는 노예 제도의 한 형태였습니다. 우리는 특정 책 등으로 인해 최근에 그것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노예 제도는 일부 로마인, 일부 지도자, 일부 로마 제도의 교육 지도자들이 실제로 계약 노예로 삼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끔찍한 노예 제도였습니다. 우리는 구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노예 제도에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반대합니다. 사실, 우리는 빌레몬서를 가지고 제가 매우 강력한 가르침의 함축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거 본문은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필레몬에게 가르치라고,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필레몬 안에는 매우 강력한 함의가 있지만, 정확히 증명 텍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함축적 수준은 심각하지만, 단순히 구절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증명 본문에 대해 아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사용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구절을 찾는 것은 매우 유혹적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큰 책이고, 충분히 오래 살펴보면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할 단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구두 동의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이런 것들을 맥락에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 구절을 기억합니다. 약의 모든 모양을 피하십시오는 킹 제임스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번역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크리스천이었을 때 그 구절이 쓰였던 걸 기억합니다. 영화관에 가지 마세요. 영화는 사악해요.

술집 겸 레스토랑에 가지 마세요. 술 마시는 건 사악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렛대, 쇠지렛대로 사용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 구절의 주제도 아니에요. 그 구절은 문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전에 성경으로 가서 어떤 것을 일종의 악으로 정의해야 해요.

그래서, 그 구절은 이해되기보다는 사용되고 남용되었습니다. 그런 구절이 많이 있고, 우리 모두는 구절을 가져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작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해석적 복화술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해석학은 성경 해석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사실, 그 단어는 그리스어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들이 예수의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시를 붙였을 때, 그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습니다. 내가 그 그림을 제대로 이해했나요? 찾아보는 게 낫겠어요. 이 시점에서 테이프를 멈추고 이것을 편집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적어두지 않은 예를 사용하는 이 모드로 들어갈 때, 가끔은 그것에 대해 약간 노련한 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학은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석적 복화술, 그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복화술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마네킹 인형을 가지고 있고, 인형 안에 팔을 넣고 인형이 원하는 말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해석적 복화술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형처럼 취급하고 원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해석적 복화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가서 몇 가지 단어를 찾아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원래 없었던 의미를 삽입한 것인가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암시된 수준에서는 매우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수준, 즉 맨 위의 창조적 구성 수준에서는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구성 수준은 데이터에서 생성되어 시스템에 넣어 무언가를 가르치는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전천년설은 종말에 대한 창조적 구성입니다. 모든 천년설은 종말에 대한 창조적 구성입니다.

칼빈주의는 창조적인 구성물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창조적인 구성물입니다. 그것이 구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분명히 구절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그 각각은 전체 성경에 대한 큰 거시적 설명이며, 성경의 조각들은 그 거시적 설명에 들어맞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이유이고,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일부 영역에서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는지 매우 빨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성경에 도달하여 우리의 구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지만, 결국 누군가가 이 특정 구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글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견해에 대한 증명 텍스트가 없기 때문이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특정한 큰 이해를 증명하기 위해 논리적인 방식으로 모은 텍스트 모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언약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성경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는 경륜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성경을 특정한 이해에 특정한 일치로 이끌기 위해 성경에 씌워진 렌즈와 같습니다. 이제 조심하세요. 그들은 성경이 그들을 그러한 이해로 이끌었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들이 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나요? 성경에 대한 거시적 관점이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의 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의 과제는 팔을 치켜들고 “내가 뭘 해야 하나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것을 인식하고, 모든 다양성에 희생당하는 대신, 다양성을 다루고, 다양성을 분류하고, 그것을 성찰적 초점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직접적, 암시적, 창조적이라는 이 구성에서,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을 보길 바랍니다.

피라미드의 측면에는 위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교육 의도에서 신학적 분석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뜻인가요? 글썄요, 피라미드의 바닥에서 특정 구절을 다룰 때, 그 텍스트가 무슨 뜻인지 알아내기 위해 주해 및 성경 신학에서 아주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소통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의도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그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매우 잘 알고 있고 작가의 의도에 대한 모든 논쟁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Vanhoozer의 유명한 책, *Is There a Meaning in the Text*는 그렇다, 의미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읽기에 매우 구조화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해석학의 전체 역사가 있습니다. 텍스트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의미를 도출합니까? 하지만 저는 그저 당신에게,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를 올라가 창조적인 구조물에 이르면, 신학적 분석이라고 알려진 것에 이르게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아마도 자신의 전통을 연구하는 데 철저히 훈련받은 숙련된 개인들이 성경과 의미를 하나로 모으고, 전통으로서 알게 된 대로, 다양한 해석, 다양한 거시적 구조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분석을 성찰적인 초점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 사역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올라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원래 말했던 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피라미드는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는 통합되어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이성의 선을 볼 수 있고, 그 이성의 선을 테스트해서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설득력은 있지만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창의적 구성에 맞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련된 사람들이 신학을 쓸 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의 오른쪽에는 텍소노미라고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텍소노미는 교육 용어이며,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이해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맨 아래에 우리는 그것을 낮은 분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쉬운 분류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것은 분류법에 대한 더 무차별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할 때 무슨 뜻인지 연구해 보세요. 구원 역사에서 그 진술과 의미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나가서 찾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검색할 수 있는 잔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류법의 하위에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올라갈수록 높은 분류법이 있는데, 이는 훨씬 더 많은 2차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것은 제가 이것이 여기서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하고, 제가 그것이 여기서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이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정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정은 항상 시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것들, 이 거시적 체계들, 그리고 신학의 역사가 만들어낸 창조적 구성물들은 시험받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경전의 산물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신학 백과사전에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직접 암시된 그리고 창조적인 구성의 피라미드를 통해 다시 살펴봐야 경전 해석에 대한 다양한 주장의 설득력 있는 본질 또는 설득력 없는 본질에 대한 확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고, 제가 여기 있고, 종합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강의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학기를 가져갈 수 없고,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블록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기되는 기본적인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요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신학적, 사역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글썄요, 시간이 걸리지만 시작이 필요하고, 그 시작은 지금입니다. 제 핸드아웃을 읽고 이 항목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디오 강의를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 범위 내에서 유지하여 이 비디오에서 한 장면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앉아 있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특정 핸드아웃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당장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비디오 강의를 듣고 있으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저는 네 번째 비디오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이 대화를 계속하고 검증 문제를 추가할 것입니다. 검증은 다음 핸드아웃,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다음 노트 패킷입니다.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과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이드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허수아비나 해석적 복화술사로 대하지 않고,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끌기보다는 성경이 여러분을 이끌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에서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Gary Meadors 박사입니다. 이것은 3강,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 성경 가르침의 세 가지 수준, 1부입니다.